



세계질 푸르른 양간디와 함께...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한국조정 대회 사상 첫 '금빛 물살'

한국 조정이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빛 물살을 갈랐다.

신은철(19)은 7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조정 남자부 싱글스컬 결승에서 3분38초04에 결승선을 통과해 인도의 타카르 바라글랄(3분39초43)을 여유롭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한국 조정은 19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부터 참가했으나 은메달 9개만 기록하다 24년만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병택, 황윤삼, 장대규로 구성된 한국 사격 대표팀도 남자 25m 스탠다드 권총 단체전에서 1천696점을 쏘아 인도(1천690점)를 따돌리고 금빛 총성을 울렸다.

박병택은 개인전에서도 571점을 기록해 인도의 라나 자스팔(574점)에 이어 은메달을 추가했다.

2004 아테네올림픽 체조 개인종합 은메달리스트인 영광고 출신 김대은도 체조 남자 개인 종목별 평행봉 결선에서 16,300점을 얻어 중국의 양웨이와 공동 금메달을 차지했다.

양태영(포스코건설)이 무릎 부상으로 이번 대회를 접으면서 그를 대신해 평행봉에 나선 김대은은 예선을 16,000점으로 전체 6위로 통과한 뒤 결선에서 안정된 연기와 완벽한 착지를 펼쳐 지난 10월 세계선수권대회 평행봉 부문 우승자 양웨이와 공동 우승을 이룩했다.

경보에선 김현섭(21)이 남자 20km 경보 레이스에서 2위(1시간23분12초)로 결승선을 끊으며 한국 경보 사상 첫 아시안 게임

신은철, 남자부 '싱글스컬' 우승 남단체 25m 스탠다드 권총 '금'

메달을 은빛으로 장식했다.

10년 전부터 '전략 종목'으로 경보를 집중 육성해 온 한국 육상이 아시안게임 메달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섭은 출발 직후 세 바퀴를 돌 때부터 장대비가 쏟아진 가운데 펼쳐진 레이스에서 전반 10km 지점까지는 한유청과 일본의 모리오카 고이치로, 야마자키 유키에 밀려 4위로 처졌으나, 후반부에 스피드를 펼쳐 야마자키를 따라잡고 마지막 한 바퀴에서 모리오카를 5초 차로 제치고 2위로 끝냈다.

하지만 정상 문턱을 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2연패한 장미란(원주시청)은 지난 6일 밤 최종량급(75kg 이상급)에서 인상 135kg, 용상 178kg, 합계 313kg을 들어올렸으나 인상에서 세계기록을 세운 중국의 무수양수양(합계 317kg)에게 4kg 뒤져 은메달에 그쳤다.

수영 중·장거리에서 이미 2개의 금메달을 땀던 박태환(경기고)은 남자 자유형 100m 결선에서 50초02에 물살을 갈라 중국의 천주오(49초06)에 이어 2위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박태환은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스피린터의 가능성까지 보여 줬다.

한국야구대표팀은 최종전에서 중국을 12-27회 콜드게임으로 제압, 옥스러운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형택(삼성증권)을 앞세운 남자테니스는 단체전에서 가장 걸끄러운 대만을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여자배구 대표팀은 예선리그 A조 마지막 경기에서 베트남을 3-0으로 완파했다.

한국 여자하키는 한국의 김창백 코치가 이끄는 중국에 패해 자력 결승 진출이 힘들어졌다. 한국은 이날 오후 8시 현재 금메달 17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39개가 됐지만, 금메달 22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33개를 따낸 2위 일본과의 격차가 전날보다 벌어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대은이 평행봉 금빛 연기

김대은이 6일 카타르 도하 아스파이어홀에서 벌어진 체조 남자 개인 종목별 평행봉 결선에서 화려한 금빛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승마 종합마술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한 김형철 선수가 경기 도중 장애물에 걸려 말과 동시에 쓰러져 부상을 입고 있다. 김수수는 도하 하마드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 /연합뉴스

■ 낙마 사고로 숨진 김형철 선수 8년간 체전 광주대표로 출전 아버지도 국가대표 '승마가족'

7일 2006 도하아시안게임 승마 종합마술 경기 도중 낙마 사고로 숨진 김형철(47·금안회)은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승마가족 출신이며 이번 승마대표팀 최고령인 경력 31년의 베테랑이다.

김씨의 아버지인 고 김철규씨는 지난 64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한국 승마 1세대'로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광주승마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형철씨도 서울 한영고 진학 후 승마에 입문, 본격적인 승마인의 길로 들어섰다.

졸업 후 광주시체육회 소속으로 제 70회 전국체전부터 제 84회 체전까지 8차례 출전,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곁의 품에 안겨주기도 했다.

하지만 유독 국제 대회에선 메달 운이 없었다. 1976년부터 선수로 나선 김형철은 1985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김형철은 아시안게임에만 이번이 다섯번째 출전이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때 처음 국가대표로 나서 동메달을 땀 김형철은 1994년

히로시마, 1998년 방콕, 그리고 2002년 부산 대회에 이어 도하대회까지 아시안게임 출전을 이어왔고,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도 출전했다.

하지만 대회 때마다 말이 아프거나 말살을 부려 번번이 메달획득에 실패해 '비운의 기사'라는 별명마저 붙어 다녔다.

다행히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승마 종합마술 단체전에서 조카 김규섭(24)과 함께 출전, 은메달을 따내며 그동안의 한을 털어냈다.

한편 이번사고는 김형철이 2.7km 거리의 코스에서 23개의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이 경기 출발 2~3분 후인 오전 10시15분경 8번째 장애물을 넘어 발생했다.

속도를 내던 말의 앞다리가 장애물에 먼저 걸리면서 위에 타고 있던 김형철이 공중으로 약간 뜨면서 거꾸로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후 곧바로 속도를 이기지 못한 말의 전신이 장애물 위로 거꾸로 넘어지면서 500kg에 달하는 말 중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엉덩이가 김형철의 머리를 짓눌러 큰 부상으로 이어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종합마술 경기는? 시간 다툼 크로스컨트리, 낙마위험 커

한국승마대표팀의 김형철(47)이 7일(한국시간) 도하아시안게임에서 참사를 당한 종합마술 크로스컨트리는 기수가 말과 함께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낙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경기다.

종합마술 경기는 마장마술과 크로스컨트리, 장애물 3개 종목으로 구성되는데 매일 1종목씩 경기를 가진 뒤 합계 점수로 우승자를 가린다.

특히 이틀째 열리는 크로스컨트리는 대회마다 다르지만 보통 7-8km의 거리를 달리며 45개의 장애물을 뛰어 넘는다. 장애물을 뛰어 뜨거나 규정 시간내에 결승선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낙마하면 65점의 감점을 받는다.

분당 최고 600m의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하기 때문 기수가 말에서 떨어지거나 말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죽는 사고가 가끔 일어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회 26년만에 남북 축구 대결

10일 새벽 1시 4강행 다툼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우승을 꿈꾸는 베어벡호가 금백 전선의 기로에서 북한과 맞닥뜨리게 됐다.

2006 도하아시안게임 한국축구대표팀은 10일 오전 1시 카타르 도하 알 라얀 경기장에서 리정만 감독이 이끄는 북한과 운명의 일전을 벌인다. 물론 김 배어벡 감독은 지휘봉을 잡은 이후 첫 남북대결이다.

한국축구가 아시안게임에서 북한과 맞붙은 것은 26년 전인 1978년 제8회 방콕아시안게임 결승이었다.

남북한은 득점없이 비겨 사이좋게 공동 우승을 차지했고 동시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성인대표팀 A매치에서는 한국이 5승3무1패로 앞서 있다.

가장 최근의 대결은 요하네스 본프레레 전 감독이 대표팀을 맡고 있던 작년 8월 동아시아대회였고 결과는 0-0 무승부였다. 한국이 진 적은 1990년 평양에서 딱 한 번 있었다.

8강 티켓이 걸린 일전에서 속직 일본을 2-1로 물리친 북한의 리정만 감독은 "결승에서 맞붙었으면 좋았을텐데 불행히도 8강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오늘의 주요 경기

- ▲육상
△여자 7종경기 100m 등(15시)
-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 등(22시)
- ▲볼링

- △여자 5인조전(15시)
- △남자 5인조전(19시30분)
- ▲복싱
△48kg급 8강전 등(20시)
- ▲당구
△여자 8볼 32강전 등(16시)
- ▲승마
△종합마술 개인 및 단체 장애물(15시)

- ▲골프
△남자 1라운드(13시) △여자 1라운드(14시40분)
- ▲핸드볼
△남자 한국-일본(22시)
- ▲하키
△남자 한국-중국(22시)
- ▲사격

- △남자 25m 센터파이어 권총 등(14시)
- ▲정구
△남녀 복식 결승 등(15시)
-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여자 듀엣 기술 연기 등(16시)
- ▲태권도
△남자 58kg급, 78kg급 △여자 51kg급, 67kg급(20시)